

전두환·노태우·장세동 등 37명 '5·18 가해 책임' 소환조사 한다

5·18 진상조사위 기자간담회

6월부터 증인신문 등 본격 조사
발포명령자 규명 등 성과 낼지 주목
노태우 자문 변호사 선임
정호용 "나는 핵심이 아니다"



12일 오후 서울 중구 나라기움저동빌딩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송선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종철 부위원장, 송 위원장, 이종협 상임위원.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 진상조사위)가 전두환·노태우·정호용·장세동씨를 포함한 37명을 '5·18 가해 책임자'로 압축하고 6월부터 본격 대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노태우씨 등 5·18 유혈 진압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일부 인사들은 자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상황에서 5·18 진상조사위가 발포 명령 책임자 등 핵심 의혹 규명에서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의 경우 "나를 조사해달라. 억울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내고 조속한 조사를 촉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5·18진상조사위는 핵심 대면 조사 대상자인 이른바 '5·18 가해 책임자'로 37명을 압축하고 소환 또는 방문 조사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조사에 앞서 5·18 진상조사위는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과 함께 증인신문 준비서(질문 리스트 등) 작성과 대상자 조사 불응 시 대응책 마련 등에 집중하고 있다.

5·18 진상조사위가 역점을 두고 조사할 5·18 가해 책임자에는 당시 최고 실권자였던 전두환(당시 보안사령관)씨를 비롯해 장세동(특전사 작전참모), 노태우(수경사령관), 정호용(특전사령관), 최세창·최용·신우식(3·7·11 공수여단장), 안부웅·조창구(61·63 대대장) 등 신군부 실세들과 유혈진압 현장 지휘관 등이 포함됐다. 당시 군부 핵심에서 밀려나 실권을 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던 이회성

당시 계엄사령관(육참총장)도 대상에 올랐다.

5·18 진상조사위는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유혈진압 관련 검찰이 기소한 91명(12·12반란 44명, 5·18 관련 47명) 가운데 중복자를 걸러내고 생존자, 고령자, 핵심 종사자 위주로 우선 대상 조사자 명단을 작성했다.

5·18 진상조사위가 20여년 만에 다시 광주 학살의 정점에 선 인물에 대한 조사망을 좁혀가자, 유혈진압 결정과 실행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당사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태우씨 측은 전년대 법대 출신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영입하고 조사에 대비하고 있으며, 지난 2월 "나는 억울하다"는 진정서를 보내어 조속한 조사를 촉구한 정호용씨 역시 변호사 자문을 받으며 5·18 진상조사위에 맞서 대응책을 부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씨의 복심이자 특전사령부 작전참모로 광주에 내려와 암약한 장세동씨의 경우 5·18 진상조사위 측 인사가 접촉하며

조사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5·18 진상조사위 사정에 밝은 군 출신의 한 인사는 "당시 군에서 장세동씨는 대령계급장을 달고 있지만 전두환 다음가는 위상을 가졌다. 지금도 과거에도 장세동은 전두환 분신이다. 5·18 이전인 5월 중순부터 광주에 내려가 모종의 역할을 한 게 장세동인데 그동안 검찰 조사, 광주 청문회 등에서 소홀하게 취급됐다"며 "장세동 등 핵심 인사들을 대면 조사할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송선태 5·18 진상조사위원장은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발포명령 등 핵심 의혹 규명을 위해 책임자급 인사들에 대한 조사는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불응 시 소환장 발부, 관할 검찰청을 통한 조사 의뢰 등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가정의달' 코로나19 확산 결국 터졌다

광주·전남 연일 수십명 발생 ... 광주, 유흥시설 종사자 전수검사

우리가 험악이 됐다. 광주시 등 방역당국은 모임이 잦아 수 밖에 없는 '가정의달' 5월을 맞아 코로나19 대확산을 예견하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을 당부했지만, 연일 수십명씩의 신규 확진자가 장소와 계층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등 감염세가 심상치 않다.

이윤섭 광주시장은 급기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유흥시설 종사자 전원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상무지구 유흥업소 관련 3명, 서구 콜센터 관련 2명,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13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유증상자 3명 등 21명이 신규 확진됐다. 10일 24명, 11일 22명 등 이를 연속 20명을 넘어선 확산세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특히 감염지역도 학교, 유흥업소, 콜센터, 사우나, 독서실, 음식점, 교회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확산하면서, 어느 곳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확진자가 다녀간 광산구 한 교회에서는 예

배 참석자 등 19명을 검사한 결과 교인 5명과 가족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서구 모 교회는 지난 9~10일 확진자 방문 기록이 있어 470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하고 있다.

5000여명으로 추정되는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전수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남에서는 지난 11일 17명, 12일 오후 2시 현재 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누적 확진자는 1200명을 기록했다. 이틀간 확진자는 여수 11명, 광양·곡성 각 3명, 고흥 2명, 구례·장성·완도 각 1명으로 동부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에는 공무원(여수), 세무사(고흥), 선원, 농기계업자, 식당 직원, 나이트클럽 직원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됐다.

/박진표·김형호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가 인재를 찾습니다 제69기 수습기자 모집

올해로 창사 69주년을 맞은 호남 대표 정론지 광주일보가 열정과 패기, 특독 특는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신문과 인터넷·모바일이 어우러진 융합미디어를 지향하는 광주일보에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십시오. 호남언론 증가에서 100년 신문의 역사를 여가갈 창의적인 사고와 정열, 지혜와 용기를 가진 젊은이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모집대상		
모집부서	전형기자	자격
수습기자 0명	1차 서류전형 2차 심층면접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전형일정		
전형방법	일정 및 장소	
지원서접수	5월 13(목)~27일(목)	방문 및 우편접수
서류전형 발표	5월 31일(월)	개별통보
면접	6월 3일(목)	본사 10층
최종합격자 발표	6월 7일(월)	지면 및 개별통보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부	양식 당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자기소개서 1부	A4 1장 이내
외국어 성적증명서	TOEIC 또는 TOEFL 성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졸업증명서 포함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성적증명서 포함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에 한함

▶접수처 : 우1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빌딩 10층 광주일보사 경영지원국
▶문의 : 062-220-0514

光州日報社

광주서 80대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숨져

2분 여 만에 전신 알레르기 반응
전국 세번째...인과관계 조사 중

광주에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자가 사망해 방역 당국이 인과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12일 광주시와 서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3분께 81세 여성인 A씨가 서구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1차 접종을 한 2차 접종 대상자였다. 주사를 맞은 A씨는 이상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2분여 만에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을 보이며 의식과 호흡을 잃고 쓰러졌다. 접종 전 의료진과 대면으로 진행된 예진에서는 기저질환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쓰러지자 응급 상황에 대비해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증상을 완화하는 에피네프린을 주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

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심폐소생술을 이어가는 등 응급 조치를 했지만, 접종 1시간 20분 만인 오전 10시 51분께 숨졌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한 뒤 숨진 사례는 지난 4월 서울 1명, 이번달 경기도 포천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시와 질병관리청은 부검을 통해 A씨의 사망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은 질병관리청에서 접종인과성에 대해 심층역학조사를 진행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증명한다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The New S-Class Trust in the Best.

완전히 새로워진 S-Class.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 하세요!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42)376-2557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S80 4M (배기량:3982, 공사용량:22.0, 차등유량), 복합연비:7.7(도심:6.8, 고속도로:9.9) 5등급, 복합CO2 배출량: 277
주요 서비스센터 (062)942-7200 | 광주광역시 광안구 여항대리 603(광안동) 20(소문동)
주요 서비스센터 (062)941-0090 |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당동리 520(수안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S400 4M (배기량:2925, 공사용량:25.10, 차등유량), 복합연비:11.1(도심:9.9, 고속도로:14.0)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70
S580 4M (배기량:3982, 공사용량:22.0, 차등유량), 복합연비:7.7(도심:6.8, 고속도로:9.9) 5등급, 복합CO2 배출량: 277
* 본 차량에 표기된 연비와 실제 운행 시 연비,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가격에는 국내 세금과 다름 수 있습니다.